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정혜영 의원)

의안 번호	2888
----------	------

발의연월일 : 2024. 04. 25.

발의자 : 정혜영, 강성삼, 정병용,
최훈중, 오승철 의원

1. 주 문 : 별첨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제3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그러나 하남시장은 ‘하남시장 이현재 명의’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첩하였음. 하남시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이 없으나 출마할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해당함.

다. 하남시의 주장에 따라 현수막 게첩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하남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함

라. 또한 하남시장 및 소속 직원은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함.

3.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하남시장

4. 결의안(건의안) : 붙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문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남시장은 투표 독려 현수막을 특정 정당을 연상케하는 색으로 제작하여 ‘하남시장 이현재 명의’로 하남 곳곳에 게첩하였다. 이후 하남시장(이현재)이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조치로 철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하남시는 해당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 후 게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내용(공문 등)을 하남시민에게 공개하여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바란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를 담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이 없으나, 출마할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저촉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하남시장은 다음 선거 출마 여부를 하남시민에게 공표하기 바란다.

선거는 국민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정당한 절차와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어떠한 개입도 용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개입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하남시장 및 소속 직원이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하남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시민에게 즉각 공개하라.

하나, 하남시장은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선거 출마 여부를 시민에게 공표하라.

하나, 하남시는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024년 4월 26일

경기도 하남시의회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